

참 생명을 전하는 사역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와 치유 역사까지 체험케 하는 마지막 때를 위한 문서선교.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전 세계인의 필독서 『십자가의 도』 등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61개 언어로 발간되어 전 세계에 보급되는 이재록 목사 저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권능의 역사!”

남편이 급성 뇌경색을 치료받은 이해숙 집사와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변화된 칠레 까를로스 델가도 뿌엔테알바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838호 2018년 5월 1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61개 언어로 번역돼 활발히 이뤄가는 문서선교

복음과 권능을 전하는 선교지, ‘만민뉴스’ 창간 31주년 맞아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문서선교 현황



▲ 33개 언어로 발간되는 다국어 만민뉴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소식으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만민뉴스’가 창간 31주년을 맞았다.

‘만민뉴스’는 1987년 5월 17일 창간 후, 1991년 1월 영어판 발간을 시작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2년 11월부터는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한국어를 비롯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힌디어, 히브리어 등 총 33개 언어로 발간해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매주, 격주, 월간, 분기별로 발간하는 다국어 만민뉴스는 무엇보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다양한 주제로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길을 제

시하는 기획특집,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과 국내외의 뉴스 등으로 복음 전파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줌으로 국내외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전도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 외에도 책자를 통한 문서선교 사역을 창대히 이뤄가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통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는 난해구절을 비롯한 성경 66권 말씀을 풀이하기 위해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가 담긴 『십자가의 도』

를 비롯해 『민음의 분량』, 『천국』, 『지옥』, 『영혼육』,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등 현재 112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61개 언어로 번역해 480종을 발간함으로 전 세계 만민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한편, 전자책으로도 제작되어 교보문고, 리디북스, 인터파크 등 국내 서점을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58개 언어, 518종으로 발간되어 아마존 킨들, 애플 아이북스, 구글 플레이 북스 등 해외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1, 2)을 비롯 『십자가의 도』, 『민음의 분량』, 『천국』, 『지옥』, 『영혼육』 등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판 전자책을 보급하고 있다.

믿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응답을 받는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기도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기도해야 하거나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며 병든 사람을 낫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막 16:17~18).

만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이 정녕 진실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을 내보여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1.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의 관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참마음’이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고,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빌 2:5) 참마음을 이루는 만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참마음을 이룬 사람의 고백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의 기도를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저마다 그 속에 담긴 진실함은 다릅니다. 각 사람의 진실함 정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롬 12:3)이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고백과 진실로 상대를 신뢰하는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로, 엄마가 자녀를 집에 두고 외출할 때 “집 잘 보고 있어라. 엄마가 널 믿는다.” 했다면 그 자녀를 진정 믿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는다’는 말이 필요 없지요. 자녀가 미덥지 못하니 염려되는 일들을 재차 당부하고, 외출해서도 전화로 자녀의 동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평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라면,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서 한 번의 말로 끝나지요. 이처럼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더 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덜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100% 신뢰하는 자녀가 어떤 것을 구한다면 부모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원대로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믿음이 희박할수록 그 이유를 묻

고 그대로 해 주기를 주저하지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된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을 만한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해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딸아, 너는 정녕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라며 100%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

아브라함 선지자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그를 통해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자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아내 사라가 89세로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4장 19~22절에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에도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지요.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 이듬해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믿음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어 참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살라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이지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설령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히 11:17~19).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삭을 결박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했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난 것입니다.

3.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룸으로 나타난 열매들

저는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서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7년간의 병고로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죽음만 기다리던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에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각종 예배는 물론, 여기저기 부흥성회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행해 나갔지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뜻을 깨우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술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은 함당치 않다고 하니 즉시 끊어버렸고, 십일조와 감사헌금도 드려야 한다고 하니 그대로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하신 것은 했고, “지키라”하신 것은 지켰으며, “하지 말라”하신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하신 것은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 버려갔으며 쉽게 버려지지 않으면 금식하며 버려갔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행하니 어느 새 거짓이 없는 참마음이 되어 갔고, 죄악이 없는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갔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지요. 참마음이 된 만큼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니 온전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7개월이 된 1983년 2월, 지하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의 어린 세 딸과 한 청년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새 연탄가스를 마신지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저는 그들을 성전으로 옮겨 바닥에 눕히게 하고 단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이어 막내 딸, 둘째 딸, 첫째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한 지 1, 2분도 채 안 되어 모두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성도님에게 큰 믿음이 되었고, 저 또한 하나님께 믿음을 더욱 인정받아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변함없이 진실한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참됨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또한 원수 마귀 사단도 그 사람의 믿음이 참임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송사할 수가 없지요. 이후로도 저는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위로부터 더 큰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바탕으로 2000년도부터는 해외 대형 성회들을 이룰 수 있었지요. 현실적인 여건과 사람의 지혜로 본다면 하나하나가 불가능한 성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열매로 맺혀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스터키를 가지면 잠긴 모든 문을 열 수 있듯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한정된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순간에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순간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가진다면 아무리 얽히고설킨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나 자연 재해를 비롯해 전염병이 창궐한다 해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지요. 어떤 권세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넘어뜨리려 해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처럼, 풀무불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에 “여호와와 의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녕 아버지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악들이 벗어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담대히 구함으로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60개 언어로 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



믿음의 본질과 성장의 비결 제시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삶에 적용되는 변화 체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천국에서 누릴 행복과 영화를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같은 메시지!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내시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권능의 목회자로 나오기까지 담은 이재록 목사의 자서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변화와 행복을 안겨 주었어요”



“『만민뉴스』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재된 설교를 통해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비결들을 배우지요.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 역사를 체험했기에 『만민뉴스』에 실린 간증이 더욱 감동됩니다.”
- 리나 다박 박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재록 목사님과 같은 권능을 나타내는 성경에 입각한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가 담긴 그분의 저서 『십자가의 도』는 뉴욕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이 책은 국가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루벤 디아즈 박사 (미국 전 뉴욕 주 상원의원)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믿음의 분량』을 읽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정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특징’,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등 다양한 주제 설교 말씀은 제게 큰 믿음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 세르게이 스타그네예프 목사 (러시아 생명의 양식 교회)



“『천국』을 읽고 막연했던 천국이 뚜렷해졌고, 이후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에 담긴 성경적인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은 황홀했습니다.”
- 정 드보라 사장 (말레이시아 MMP출판사)

“남편이 급성 뇌경색을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이해숙 집사
(62세, 3대대 24교구)

지난 3월 13일, 유럽 여행 중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해발 3,100 m 설경을 보기 위해 산악 열차를 타고 중간쯤 올라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 임석근 성도가 어지럼증을 느끼며 몸의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한 고산 증세인 줄 알았는데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하였지요. 저희 부부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긴 것인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행사 직원은 남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남편의 상태를 파악하더니 신속히 헬기로 이송시켜 결국 병원에 입원하였지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국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RI 촬영 결과, 병명은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원 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의 상황은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퇴원하여 가이드의 도움으로 여행 일정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3월 16일 오후 5시 경, 하나님의 은혜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천공항까지 8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초기 대응이 치료의 시간 다름이라며 이런 상태를 유지하며 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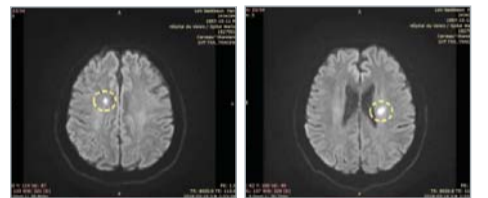
비행을 하고 왔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입원해 있는 동안 오른쪽 마비 증세까지 나타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잘 사용할 수 없었고 발음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 병원 심방을 오신 교구장님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신 뒤에는 남편이 평안을 되찾으며 신속히 회복되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손놀림도 자연스러워졌으며, 언어 표현도 분명해졌지요.

의사는 아무리 회복이 빨라도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원한 지 9일 만인 3월 24일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4월 5일부터는 이전처럼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 남편은 스스로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만민의 양 떼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 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MRI 촬영(기도받기 전)



▲ 우측 뇌백질에 뇌경색 소견이 보임.
▶ 좌측 측뇌실 주변에 뇌경색 소견이 보임.

“성경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니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2008년 어느 주일, TV를 켜는데 엔라세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 감도는 예배 전경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선하심과 겸손하심에 감명을 받아 다른 설교도 들어 보고자 교회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8개 언어로 된 홈페이지에 감사하게도 스페인어도 있었지요. 설교를 다 듣고 텍스트도 읽었으며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설교도 양식을 삼았습니다. 특히 ‘천국’ 설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었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혼육』 등 다양한 신앙서적도 읽었습니다. 그럴 수록 이것은 100%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쓰인 깊은 말씀이라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요.

『천국』과 『지옥』 책도 즐겨 보면서 이처럼 깊은 영계의 비밀을 풀이받고자 이재록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도와 금식을 쌓으셨을지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어디

서도 맛보지 못한 송이꿀 같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니 저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워졌고 기도의 능력이 임했으며, 천국 소망 가운데 더욱 충성하며 성결한 마음을 이루고자 힘쓰고 있지요. 또한 이재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 읽고, 1절을 암송하다 보니 성경을 4번이나 통독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저는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칠레와 한국 간에 12시간의 시차 관계로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설교 요약과 함께 간단한 질의 응답지를 제작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에 성도들은 주일 성수의 중요성 등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행하여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새벽, 저는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

건(행 19:11-12)을 배 위에 얹고 진리 안에서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지요.

만민중앙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만민의 사역을 통해 칠레의 모든 국민에게 구원의 역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카를로스 델가도
뿌엔테알바 형제 (26세, 칠레)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성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4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